

# 극단 Y, 100번째 초대 '금복음악다방'으로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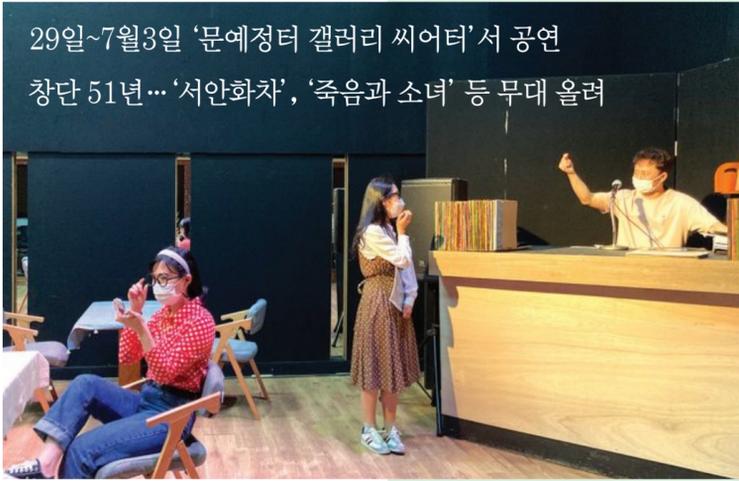
먼지로 가득한 어수선한 공연장. 오래 비워져 있던 탓에 손대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점점 음악다방의 구색을 갖춰간다. 배우들이 직접 땀 흘리며 청소하고, 직접 제작한 소품 하나하나를 무대에 배치하며 공연 준비에 나선 것.

마침내 조명이 켜져 실제 80년대 유행했던 음악다방의 모습처럼 보이기 시작한 이곳은 연극 '금복음악다방'이 펼쳐질 '문예정터 갤러리 씨어터' (이하 문예정터·광주시 동구 계림동)다. '금복음악다방' 공연을 앞두고 지난 25일 문예정터에 모인 11명의 단원들은 무대의상으로 옷을 갈아입고 본격적인 연습에 돌입했다. 연습 전 화기에 애한 분위기와 웃음소리는 금세 사라지고 실제 공연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극단 Y(대표 윤미란)가 '금복음악다방'을 29일부터 7월3일(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극단 Y의 100번째 무대로 의미가 남다르며, 특히 '문예정터 소극장'을 재정비한 '문예정터 갤러리 씨어터' 공연장에서 선보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난 1970년 창단해 올해로 51주년을 맞이한 극단 Y는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극단이다. 지금까지 '황혼녘에 생긴일', '서안화차', '춘향이 없는 춘향전', '통일 익스프레스 광주', '그 여자의 소설', '연둣빛을 넘어서 가자', '깡통꽃' 등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과 만나왔으며 '시민연극교실', '우리동네 명배우 열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창단 50주년을 기념해 '죽음과 소녀'를 무대에 올렸다.

극단 Y는 유석우 대표가 창단했다. 중학교 때 연극을 시작한 유 대표는 연기와 연출을 동시에 하며 극단 Y를 이끌었다. 그 당시 지금의 전국연극제 격인 중앙세미올림픽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받으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1982년 극단을 이끌던 장준길 대표가 막 창단한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을 맡으면서 해체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차영호 대표가 1990년 극단 Y를 새롭게 맡으면서 명맥을 이어갔다.



극단 Y가 100번째 공연으로 29일부터 7월1일까지 무대에 올리는 '금복음악다방' 연습 모습.

차 대표가 서울로 활동지를 옮기면서 해체 위기에 빠졌던 극단은 이후 2004년 극단 '공간 80'으로 데뷔해 지역에서 오래 활동해온 배우 박규상씨가 극단을 이끌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다. 극단 Y는 '서안화차'로 제23회 전국연극제에서 은상을 수상했으며 박씨가 경험을 바탕으로 쓴 희곡 '금복음악다방'은 2018년 초연 이후 2020년 고마나루전국연극제 금상, 한국연극협회 선정 베스트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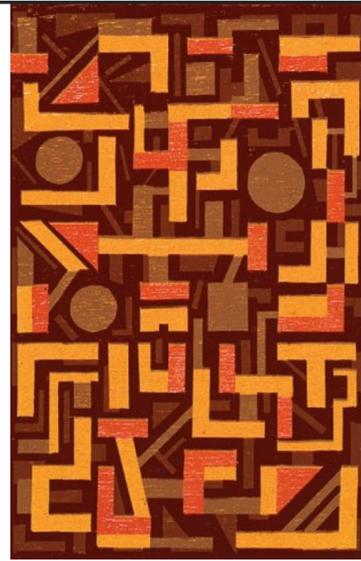
"이번 무대가 100회 공연이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극단 Y는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극단이에요. 그 역사를 관객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극단이 없어질 위기에 돌고 돌고 지금까지 올 수 있어 뿌듯하고 의미가 남다른겁니다."

박 씨는 작품 '금복음악다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에 끌려간 남녀의 엇갈린 인연을 소재로 그 시절 대학가의 풍경과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꿈과 사랑을 그렸어요. 대학가 인기 DJ였던 강민과 선주라는 인물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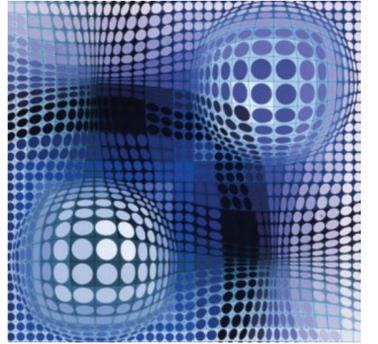
그 시대 음악다방의 풍경 그리고 젊은이들의 사랑과 문화를 보여주는 작품이지만 80년 5월의 아픔을 내포하고 있죠. 여 사장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음악다방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들려주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이들의 삶이 5·18 이후 어떻게 달라졌고,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연출은 문예정터를 운영하고 있는 호남대 최영화 교수가 맡았으며 정순기·이현기·송정우·윤미란·김경옥 등 중견배우들과 조혜수·진소연·김주열 등 젊은 배우들이 무대에 오른다. 또 '바위섬' 등으로 알려진 작곡가 배창희 남부대 교수가 가수로 출연해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극단 Y 윤미란 대표는 "이번 공연에는 일반 관객들을 비롯해 그동안 극단 Y에 관심을 가져주고 응원을 보내준 의미 있는 손님들도 초대할 예정입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관객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무료관람. 문의 010-2684-599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우제길 작 '작품 95폼-C'  
▼바자렐리 작 '구조A'



## 프랑스 작가와 함께하는 판화 특별전

7월 15일까지 우제길 미술관

우제길 화백은 아내 김자순 우제길미술관 관장과 젊은 시절 프랑스 지중해 연안과 프로방스 지역 미술관들을 여행한 적이 있었다.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작업을 위해 늘 새로움을 찾던 그는 당시 방문했던 프랑스 작가 바자렐리 미술관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름답고 예술적인 미술관 건물과 함께 바자렐리의 작품들에 매료돼 작가의 손자인 베아트릭스 바자렐리를 만나 판화 2점을 직접 구입해 두고 두고 감상했다.

우제길미술관은 오는 7월 15일까지 '프랑스 작가 빅토르 바자렐리와 함께하는 판화 특별 기획전'을 개최한다. 한 때 판화 작업에 매진했던 우제길 화백이 오랜 추억을 소환해 다채로운 기법으로 작업한 판화 작품을 소개하는 기획전이다.

전시에는 바자렐리를 비롯해 파스칼, 탁상솔레이만 등 해외 작가와 오세영·오이랑·임병중·김익모·곽덕준 등 9명의 판화 작품 35점이 선보인다. 우제길의 작품 가운데는 다채로운 색감과 기하학적 무늬가 인상적인 1990년 대 작업한 판화를 만날 수 있다.

전시작들은 판화의 다채로운 기법을 만날 수 있어 흥미롭다. 금속판에 밀그림을 그려 산(酸)으로 부식시키는 애칭(etching)기법을 사용한 오목판화, 천 위에 원하는 이미지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스크린 밑에 압착기로 밀어 작업하는 실크스크린기법을 이용한 공판화 등이다. 또 깎아내는 작업으로 볼록해진 곳에 색을 칠하는 목판화, 고무판화 등의 볼록판화는 흑백의 강한 대비로 강렬함을 느낄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아트페어 현장으로 변신하는 부산 영무파라드호텔.

## 호텔일까, 전시장일까

7월 1~4일 부산 '영무파라드 호텔 아트페어'

호텔이 아트 마켓 현장으로 변신했다.

부산 해운대에 문을 연 '영무 파라드호텔'은 객실, 로비 등 건물 곳곳에서 그림과 조각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예술 호텔'이다. 지난해 문을 연 호텔은 '쉬는 것도 예술이다'는 슬로건 아래 호텔 전체를 거대한 미술 전시장으로 만들어 휴식과 함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호텔 안에만 300여점의 작품이 전시돼 있으며 공간을 가득 채운 그라피티 작품도 눈길을 끈다.

'예술호텔' 컨셉은 광주에 복합문화공간 '갯넛과'를 운영 중인 박현택 영무 파라드호텔 대표가 적극 추진한 것으로 대표되는 문화공간 운영, 예술가 지원 등 다양한 메세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20~40대 젊은 컬렉터들의 유입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고 있는 미술 시장의 흐름에 맞춰 이번에는 호텔을 아트페어 전시장으로 변

신시켰다.

예술호텔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제1회 영무파라드 호텔 아트페어-그림 사러 가자'가 오는 7월 1일부터 4일까지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12층부터 15층까지 객실 전체가 아트페어 전시장으로 변신,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아트페어는 한국 미술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서울 인사동과 청담동 화랑 등이 참여해 주목받는 블루칩 작가들의 작품을 대거 선보인다.

행사는 갤러리 더 코르소 앤 갯넛과가 주최하며 국내 호텔 아트페어를 꾸준히 진행해온 더코르소 아트페어, 부산일보, 영무에다음이 후원한다.

영무파라드호텔은 작품 구입 고객(150만원 이상)에게 영무파라드호텔 26층 레스토랑 씨엘로 식사권과 객실 숙박 경험쿠폰을 제공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90년대 연극 메카 '문예정터', '갤러리 씨어터'로 변신

1층 갤러리, 2층 공연장

1993년 광주시 북구 계림동에 문을 연 '문예정터 소극장'이 최근 '문예정터 갤러리 씨어터'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변신했다. <사진>

1990년대 연극의 메카로 수많은 관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던 이곳은 극단 진달래피넬을 창단한 최영화 호남대 교수가 설립한 곳이다. 지상 2층, 40평 규모이며, 1층은 갤러리로 2층은 공연장으로 운영중이다.

1층 입구에 들어서면 테이블에 놓여있는 광주 지역 문화 행사를 소개하는 팸플릿들을 볼 수 있다. 벽에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열렸던 공연 사진을 모아놓은 커다란 액자가 걸려있어 공연 역사를 돌아볼 수 있다.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여럿이 앉을 수 있는 커다란 테이블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 그 옆으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있다.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바로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약 70석 규모의 관객석과 무대로 구성된 이곳은 1990년대 공연의 중심이었다.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던 공연장은 한



동안 문을 닫았다가 최근 다시 오픈했지만 지난해 코로나 19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모든 전시는 작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면 하나의 공연 작품이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의 코스로 만들어 선보일 생각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와 다른 연극과 무대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찾아 관객들과 소통할

계획이죠.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퍼포먼스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최 교수는 "사라져가는 연극문화, 소극장을 다시 활성화하고 50년, 100년 이어지는 공연장을 만들고 싶었다"며 "소극장이 점점 사라지고 공연문화가 변하고 있는 현재 새로운 개념의 공연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은재 기자 ej6621@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